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10월 20일(일) 제1512호

‘CGN 후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CGN, 10월 19~20일 정기후원 약정 행사
10월 22~31일 ‘2024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선교 미디어 CGN이 10월과 11월을 ‘CGN 정기후원의 달’로 정하고, 정기후원 행사를 이어간다. 10월 19일(토)과 20일(일)에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CGN 후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을 주제로 CGN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CGN 정기후원에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19일(토)과 20일(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796-2243) 또는 CGN 웹사이트(www.cgntv.net), 모바일로 참여하면 된다. 10월 20일(일) 예배에서는 CGN 전진국 대표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서빙고(1~4부 예배)와 양재(1~4부 예배), 일부 캠퍼스에서 특순한다. 11월 30일까지 CGN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한다. CGN 웹사이트에서 정기(신규) 및 증액 후원을 한 다음 이벤트에 응모하면 소정의 선물을 준다.

CGN 정기후원 특집 프로그램도 편성한다. 10월 19일(토) CGN 제작 다큐멘터리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기록 OTT ‘풍당’에서 단독 공개한다. 2017년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는 조선의 작은 예수라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본명 엘리자베스 웨핑)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다큐멘터리다. 10월 25일(금)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방영한다. 거제 광림교회 박동일 목사와 왕나영 사모가 출연한다.

한편 10월 22일(화)부터 31일(목)까지는 ‘2024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국내 5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10월 22일(화) 대구 산성교회, 24일(목) 대구 범어교회, 26일(토) 목포 사랑의교회, 29일(화) 춘천 중앙교회, 31일



함께! 미디어선교

CGN 후원,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목) 제주 성안교회에서 진행한다. 교회 미디어 담당자 및 봉사자, 교역자, 신학생 등 미디어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0월 20일(일)까지 구글폼(QR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중계 및 촬영, 디자인, AI 실무, 교회

음향, 풍당 200% 활용법 등 교회 미디어 사역에 필수적인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

문의: 02-3275-9372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 홍혜영 기자 hha0@onnuri.org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10월 26일 오전 10시
양재 온누리교회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10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2024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문제인식 및 공유(소강의 및 발표회), 우리의 미래(주제강의), 실천방안 구체화(패널 토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제인식 및 공유’에서는 대학청년 주제공모 발표, 공동체 우수 사례 공유, 청년세대 전도 등을 주제로 강의와 발표를 한다. ‘우리의 미래’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 ‘생명력 있는 미래 공동체 모습’, 박태성 집사 ‘데이터와 설문 분석으로 본 온누리교회의 구성 및 미래’, ‘대학청년 우수 공모작 발표 및 시상’을 한다. ‘실천방안 구체화’에서는 ‘교회의 미래성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리더십 패널 토의를 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창립 32주년 감사예배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창립 32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10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드렸다. 온누리교회 목회자, 선교사, TIM 임직원,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두란노국제선교회(TIM) 창립 32주년 감사예배는 오명 장로(TIM 담당장로) 대표기도, 32주년 영상 상영, 환영사, 축사, 감사패 수여, 이재훈 위임목사(TIM 이사장)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부담을 가져야 한다”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자 사명 되는 두란노국제선교회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 홍혜영 기자 hha0@onnuri.org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온누리교회 참가 성도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모입니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10월 27일(일) 오후 2시 시청 앞-광화문 일대에서 드린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23번 집회장소(서울역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성도 누구나 참가자 및 봉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 봉사자는 오전 10시부터 안내위원, 질서위원으로 섬긴다. 신청은 10월 22일(화)까

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이날 참가자들은 흰색 상의를 입고, 쓰레기를 담은 비닐봉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예배에 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이번 연합예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이라며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했



다. 문의: 02-3215-3313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요즘 ‘사이버렉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비판하는 일에 참여하는 콘텐츠로 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그 일을 이슈화하는 유튜브 버에 대한 별칭입니다. 세상은 지금 사이버렉카들에 의해 선동의 시대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복음주의 선교대회인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를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끊임없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 내용이 CGN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두 생중계 되었는데도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아직도 그 선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함께 신앙생활 하던 목사님들이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권면해도 듣지 않고, 선동적인 사이버렉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선동에 의식화되어 버린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받은 동영상이나 SNS 내용을 절대로 쉽게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찾아보는 내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선동은 미디어가 발전한 요즘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선동에 의해서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 ‘4천명의 자객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켜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휩싸여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사람은 수천명의 사람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고, 결국 로마 펠릭스 총독이 그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반란을 제압했습니다. 그 일의 주동자가 도망을 했는데, 다시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 그 선동에 넘어가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선동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게 분명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유대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치다가 성전에 이방인까지 데려와 더럽혔다”고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믿었고, 그로 인해 군중들이 난폭해져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둘러매고 밖으로 나갔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씌운 죄목은 ‘변절자’입니다. 로마 정부가 보기에 ‘반란자’로 오해가 되도록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절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저도 얼마 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변절자’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린 장소 근처에 ‘유기성, 이재훈 변절자! 회개하라!’는 문구가 붙은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쉽게 선동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깊어지기보다는 순간적인 뉴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깊이 읽고 모든 사실을 두루 살피면서 면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아주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에 도취되어서 사고가 점점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어느 한 영상을 보면 그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으로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세상 전부가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매우 무서운 선동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난 군중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로마 정부가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또 하나의 위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와 선동에 휩쓸리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에도 무고하게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면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법치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이 선동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는데도 청중들에게조차 정중하고, 예의 있고, 품위 있는 언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선동을 잠잠하게 하는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바울의 연설이 선동적인 이들의 말과 달리 감동을 주는 메시지였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내용이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바울의 신분이 죄수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6장까지 계속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여섯 번 자기 해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두 번, 가이사랴에서 네 번 해명을 하게 됩니다. 이 여정을 어느 학자는 존 번연의 책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을 빗대서 ‘죄수역정(The Prisoner's Progress)’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죄수로서 보낸 여정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과 인격은 억울한 일을 당해 보면 나타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복수심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버가 “유기성, 이재훈 변절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흥분해서 유기성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나 평온하게 “그동안 제가 과분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욕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저는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 봐야 인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명의 기회를 얻었으면 자신이 문제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감동입니다.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하고, 죄수의 신분에서 있을 때조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선동하는 이들은 모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혁

둘째,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 모습이 “유대인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변혁(transformation)”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전체에서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은 “나는 부활하신 예



“선동의 시대, 선동에 끌려가거나 선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의 기준은
‘자신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입니다.”

수님을 만났다. 나는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그런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난 믿지 않았는데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야망, 꿈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제거하는 일이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변혁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빛이 임해서 그의 눈이 잠시 보지 못했지만, 그 빛이 그의 영혼을 파고 들어서 강렬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고후 4:6).

빛을 통해서 잠시나마 눈이 멀게 됐지만, 그의 영혼이 빛을 보게 된 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목표와 비전을 설정해서 노력하는 것도 일부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변혁’이라는 더 강렬한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체인지(change)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

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내 머리 속에 어떤 지식을 더 넣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변화 되는 것입니다. 지식은 내 머릿속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에 더 갇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지식을 바꿉니다. 새롭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혁이 됐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르심

셋째, 그 내용이 자신의 비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전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 그 부르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해서 ‘비전’보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든 비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

심의 내용을 아나니아에게 가서 듣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알려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듣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부르심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가지고 활동했을 때 누군가 “맞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라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 부르심을 듣게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 하느냐?” 이름을 두 번 부르신 것은 매우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왜 나를 핍박 하였느냐?”고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핍박받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써 한 몸이라는 바울의 교회론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핍박이 곧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옆드려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

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변혁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에 대하여 눈이 밝은 사람이 되는 변화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사도행전> 21장 후반부터 22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해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해명할 기회에서 자신의 변명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으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의 시대, 선동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동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입니다. 이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를 주창하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모임에서 말씀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선동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제4차 로잔대회 오해와 왜곡 ‘팩트 체크(Fact Check)’

장선범 목사(행동하는크리스천연구소), 로잔대회에 관한 논란 총정리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도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오해와 왜곡된 시선이 난무하다. 온갖 거짓, 본질과 전혀 다른 주장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온누리신문>에서는 그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제4차 로잔대회의 올바른 의미와 성과 등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장(場)을 마련했다. 첫 순서에서는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오해와 왜곡을 ‘팩트 체크(Fact Check)’하는 장선범 목사(행동하는크리스천연구소)의 글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장선범 목사
(행동하는크리스천
연구소)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가 진행됐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온 5,400여 명의 복음주의 선교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선교를 위한

아이디어와 영향력을 공유했다. 성황리에 막 내린 제4차 로잔대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명장면으로 남겨질 것이다. 필자가 이 주장을 하려면 먼저 로잔대회에 관한 오해와 논란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이미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자료가 유통되면서 로잔운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에 관해 정리한 다음 제4차 로잔대회에서 발표된 <서울선언>이 전 세계 기독교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제4차 로잔대회는 ‘종교통합운동’이 아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이 대회를 ‘종교통합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주최 측은 온갖 루머에 시달리면서도 강경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도할 뿐이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제4차 로잔대회에 관한 왜곡과 선동이 극에 달했다.

“로잔대회는 WCC 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은 ‘종교통합’을 추구하는 배교의 집회다.”

제4차 로잔대회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심지어 대회장인 유기성 목사(선한목사교회)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를 한국 교회의 ‘배교(背教) 문’을 여는 이단자로 몰아갔다.

그들은 로잔운동의 설립자 빌리 그래엄 목사와 <로잔언약>(1974)을 설계한 존 스토틀 목사까지 배교자로 몰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건전한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배교자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중요와 광기의 선동을 일으킨 나치의 선전부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고 말했다. 선동과 세뇌를 벗겨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9월 9일 평생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연구한 신학 교수 136명이 “제4차 로잔대회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며, 건전한 복음주의 행사로서 지지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선동하는 자들은 이들이 제4차 로잔대회에 타협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어찌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고 다 믿을 수 있으며, 성경이 신학자 136명의 말보다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필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다. 영적 분별력을 잃는 순간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의 영적 포로가 된다.”

“당신에게 제4차 로잔대회가 배교집회라고 말해준 그 사람의 말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믿을 수 있는가?”

평생을 복음주의 신학을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해 헌신해 온 교수들은 어쩌면 신앙의 순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대부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스승이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성명을 낸 것은 믿지 않으면서, 어찌 복음주의 교단에 소속조차 되지 않은 자들의 말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선동자 중에는 이름과 얼굴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만약 목사나 전도사라면,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학을 가졌다는 것을 공인해 줄 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동가들의 특징은 소속 교단이 불분명하고, 알려진 복음주의 교단 소속이 아니다. 일부는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은 자의적이며, 의미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여전히 유튜브 댓글과 SNS를 둘러보면, 로잔운동이 배교를 부추기는 매우 위험한 집회

라는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 애통한 일이다. 지금도 선동가들은 제4차 로잔대회가 종교통합운동이라며 확산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자의적이며, 의미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나 손쉽게 거짓과 왜곡의 정보들을 유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일이 모든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한 정보들을 모두 검증할 시간에 이미 더 많은 미혹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미혹의 시대다. 영적 분별력을 잃는 순간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의 영적 포로가 된다.

로잔운동에 대한 무수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팩트체크(Fact Check)를 해보려 한다. ‘로잔대회 2일 차 강사, 동성매력자 본 로버츠?’, ‘로잔대회 진행자 만다라와 기운’, ‘로잔대회에 LGBTQ+ 단체 Revoice 참여?’라는 제목의 동영상 세 개를 짚어보려 한다.

첫째, 로잔대회 2일 차 저녁 집회 강사로 참여한 본 로버츠 목사를 친(親)동성애 강사로 오해하게 만든 영상이 있다. 그러나 강의 전문

을 들어보면 본 로버츠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죄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youtube.com/shorts/IfToEPVhugp).

“기독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으며,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맥락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며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둘째, 제4차 로잔대회에서 여성 사회자가 입은 옷의 문양이 종교다원주의를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힌두교와 불교의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만다라’ 문양을 왜 입고 왔느냐며 시청자에게 로잔대회의 숨겨진 종교다원주의 의도를 간파했다고 주장했다. 그 옷을 입은 여

성 사회자는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의 델핀 판폰(Delphine Fanfon) 박사이다.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 리젠트 대학교에서 리더십 박사를 취득한 여성 크리스천 지도자다. 그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올바른 지도력을 교육하는 ‘Me4real’이라는 선교단체(www.me4realinternational.org) 설립자이기도 하다. 카메룬과 아프리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델핀 판폰 박사가 그 옷을 입고 나온 날 로잔대회 5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참가자 모두가 각 나라 전통 옷을 입었을 뿐이다. 옷 문양을 보고 종교다원주의자가 사회를 진행했다는 식의 주장은 음모론적 해석이다.

셋째, ‘Revoice’라는 단체는 기독교 성소수자 LGBTQ+를 위한 단체가 맞다. 그런데 어떤 단체인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Revoice에 관한 소개 글이 나온다(www.revoice.org).

“Revoice exists to support and encourage sexual minority Christians who uphold the traditional sexual ethic -and those who love them- so that the whole Church might flourish(Revoice는 전통적인 성 윤리를 고수하는 성소수자 기독교인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격려하여 전체 교회가 번영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성 윤리를 고수하는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을 격려한다’는 문장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성 윤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것과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믿는 성소수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만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싶어도 한번 중독되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듯이, LGBTQ+라는 잘못된 성 중독에 빠진 자들도 마찬가지다. Revoice는 그들이 올바른 성정체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LGBTQ+를 위한 선교단체다. Revoice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니다. 전통적 성 가치관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선교단체이다. 유튜브에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단체 소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읽어주지 않았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해서 자신과 비슷한 주장의 2차 해석 자료에만 의존해서 로잔대회에 친동성애적 LGBTQ+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왜곡한 것이다(계속).

장선범 목사(한동대학교 경영·국제 학사 / 싸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미국 남침례교단) 목회학 석사 / 계명대학교 조직신학 박사과정)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동아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이후 목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법화시키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의 신앙 자유를 위한 ‘행크연구소’(행동하는크리스천연구소)를 세워 기도하고, 행동하고, 연구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직업

직업과 신앙

연구원으로, 대학교수로, 현재는 회사 임원으로 38년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리낄 것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직장에서 정직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았다. 직장마다 오래된 관습이 있고, 그 관습대로 행하면 당장은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요구받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

어느 날 큐티 시간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사람에게 대해 거리낄 없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 거리낄 없는 삶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 아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 동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이다. 그날 큐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얼마 뒤 양심에 거리낄 있는 서류 작성을 요구받았고, 모든 동료가 그 서류를 작성했다. 나는 <사도행전> 24

장 16절 말씀을 기억하며 용기 내서 선배에게 “저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이 서류는 작성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연구실에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한 명이 “너만 깨끗하냐? 나도 안 해”라면서 서류를 찢어 버렸다. 그러자 다른 동료들도 서류를 찢었고, 그 이후 나에게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 동료 중 일부는 계속 트집을 잡으려 했고, 못 마땅해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마음속 갈등을 없애주셨다. 그 이후 하나님이 연구실

분을 작성한 적이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라는 불평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중에 다른 동료들이 집필한 내용과 함께 출판되었는데, 내가 작성한 부분이 부실하게 보였다. 하나님은 내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 말로 하는 전도가 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 나의 불성실을 자백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이후 직장 생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연구소로, 학교로, 현재의 회사로 보내셨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심판으로 나아가는 영혼들과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셨다. 양육할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직장 생활의 우선순위는 일의 형통함이 아님을 알게 하셨다.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말씀과 삶을 나누었는데,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시고, 은혜로 부족함을 덮어주시며, 형통함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김명욱 장로
(성북공동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의 모든 동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 동료에게는 외국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었고, 그 이후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주께 유업의 상을 받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다. 나의 전공과 연구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보고서 작성위원회에 차출돼 일부

시도록 기도했을 때,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주셨다. 직장에 출근해서 거의 매일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일과를 시작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추구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으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으로 격려해 주셨다.

셋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는 <

특별기고

‘에바 에들’의 용기

지난달, 7명의 프로라이프 시위대가 ‘시민권 음모’에 가담하고 클린턴 시대 제정된 클리닉 출입의 자유(FACE)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시위대는 2020년 8월 미 시간주 스털링 하이츠의 한 낙태 클리닉 앞에서 시위하다가 체포되었다. 7명은 최대 11년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젊은 시절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89세 미망인 ‘에바 에들’이다. 그녀는 1955년 20살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정부 주도의 인종청소를 피해 미국으로 왔다. 인종청소의 표적은 그녀의 가족이 속한 독일어권 민족인 다뉴브 스와비아인들이었다. 에바의 어머니는 데일리 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었어요?”라며 부당함을 규탄했다.

에바가 아홉 살이었을 때 그녀와 부모님, 언니, 오빠가 군인들에게 불잡혀 가족 수송차에 실려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다. 수감자들은 같은 숙소와 하나의 외양간을 사용하도록 강요 받았다. 어른들은 강제로 일을 해야 했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밤에서 일하던 에바의 어머니가 곡식더미 아래 수레를 타고 탈출했다. 그녀는 나중에 돌아와 가족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7년 낙태를 반대하다 체포 당하는 에바 에들.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에바가 낙태의 잔혹성을 알게 된 것은 1968년이었다. 영어 수업 중 한 동료 학생이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시기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낙태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전이었다. 에바는 “그 후로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의 아이를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 신경 쓰여서 항상 그 주제를 꺼냈다”고 말했다.

1988년 가을, 애틀랜타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두 달 동안 낙태 반대 시위를 벌인 시위대 400명이 낙태 클리닉 밖에서 체포

되었다. 에바는 충격을 받고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바는 낙태 클리닉을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를 죽이려고 소집한 이들은 우리를 기차 가축 칸에 싣고 죽음의 수용소 캠프로 보냈습니다. 만약 그때 시민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의 수용소 입구와 기차 사이의 철로 위에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기차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 열차의 경비병들이 열차 앞에 있던 사람들을 검거하느라 바쁠 때 다른

그룹이 들어와서 우리 칸을 열고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해 말, 에바는 애틀랜타에서 열린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50회 이상의 ‘구조’ (그녀가 시위라고 부르는 것) 활동에 참여했고, 그만큼 체포된 횟수도 많았다. 전후 공산주의가 지배하던 유고슬라비아의 폭정을 피해 이민을 온 에바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다가 투옥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제 눈에 미국은 정의와 기회, 모든 것이 좋은 나라였어요. 당시 우리를 지배하는 자의 억압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르는 저 너머의 우리를 위한 등대였죠. 인간의 생명은 신성해요. 정부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허용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살인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예요.”

몇 년 전 낙태죄가 뒤집힌 이후 법무부는 40명의 생명권 옹호자들을 FACE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 생명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에바와 전국의 시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 존 스토티스트리치(골스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베스트셀러 작가), 재러드 헤이든(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

원문: breakpoint(2024103)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의 의의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유와 그 방법



하선희 집사
(미래성장위원회)

2001년 8월 카스트로 대통령은 자신의 75세 생일을 맞이하여 쿠바의 공산주의 청년 단체 수장에게 쿠바 국기를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언론은 이를

‘카스트로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꿈, 즉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쿠바의 젊은 세대가 혁명을 이어받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도했다. 쿠바의 아이들에게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혁명은 소멸할 것을 알았던 카스트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주의의 횃불을 다음세대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카스트로도 다음세대에게 공산주의 세계관을 전수하겠다고 이렇게 애썼는데 우리 다음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현실은 처참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 4%에 불과했던 남한의 기독교인은 1985년 34%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 22%로 감소했다. 하지만 십 대의 비율은 3%로 전쟁 전보다 줄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대학에 가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집에 있는 십 대, 특히 10~17세 때 신앙을 많이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왜 그렇게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치과에 가는 것보다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싱가포르에서 전 성도의 평균 연령을 22세로 유지하고자 파나는 노력을 반세기 동안 이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HOGC, Heart Of God Church)’의 이야기인 <온 세대(GenerationS)>라는 책에는 기적과 특단의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 교회의 부흥은 두 세대를 넘기지 못한 채,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던 붉은 색 십자가는 다음세대에 사라질 것이라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다. 위기를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기후 위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매우 위태롭지만 지금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당장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안 그래도 인구 소멸 후보국 1위인 이 나라에서 차세대 신앙 전수와 교회가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결국 그분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HOGC처럼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를 이미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교회도 오는 10월 26일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통해 이



지난해 OFFC 패널토론.

**“위대한 리더는 감히 꿈꾸고, 행동하며,
다음세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위대한 후계자 없이는
결코 위대한 성공이 있을 수 없다.”**

문제를 다루면서 온 세대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의 불꽃을 이어가는데 헌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지름길이나 간단한 해결책은 없다. 교회와 교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나이는 올라가기만 하지 결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젊게 유지하는 일은 어렵다. 게다가 일단 차세대를 잃어버리면 다시 세우기 어려운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년배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청년을 교회로 이끄는 사람은 청년이다. 그래서 교회가 차세대를 잃어버렸거나 자녀들이 부모에 끌려서 교회에 온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다음세대에 대한 발판과 영향력을 잃은 것이다.

교회가 의도적으로 청년과 차세대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데 집중하지 않고 삶의 유기적 순환에 맡기면, 교회는 25~35년의 세대 간 격차를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세대를 넘어 성장하는 교회는 세대 간 간격을 3~5년으로 유지하면서 차세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면서 여러 세대의 리더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 과정에서 세대는 교체되지 않는다. 기성세대와 차세대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끈다. 차세대는 앞선 세대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지하고 강화시킨다. 영적 원리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차세대를 계속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청

장년은 여전히 서로 공감할 수 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사랑과 믿음, 열정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약화될 수 없으며 비전과 가치는 결코 지나가는 시대의 희생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없지만, 이번 OFFC처럼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회의 평균 연령과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분석하고 1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청년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고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청년은 내일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교회이자 내일의 리더가 아니라 오늘의 리더이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사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청소년”을 “성인”처럼 대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다윗, 예수님의 제자 모두 십 대나 청년 시절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아직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십 대는 리더십을 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들을 오늘의 교회이자 리더로 사역에 초대하고 참여시키지 않고,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재미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 사역의 문제점은 재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차세대 사역이 교제와 피자 파티 사이에 설교를 가미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아이들은 더 재밌게 놀고 더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기대치가 낮다면 아이들이 결국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높이고 차세대의 열정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구해야 한다.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대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비전

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훈련하고 힘과 권한을 주고 오늘의 리더로 세워야 한다. Z세대는 사회 정의 같은 삶의 의미나 목표에 관심이 많다. 이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불붙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성공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있는 이들을,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하나님께 바칠 세대로 키우면 하나님은 이 세대를 사용하여 모든 사회 계층과 각계각층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교회는 오락센터나 쇼핑센터가 아니라 훈련장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곳 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부서에서 청년들에게 발언권과 투표권을 주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 세대에 필요한 말은 “너희가 필요해. 너희는 할 수 있어”다. 비전과 힘과 권한을 받은 차세대는 생산자이자 선수가 되지만, 재미있게만 해 준 아이들은 소비자이자 관중이 된다.

아버지는 단순히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다시 아버지로 길러야 하는 사람이다. 시대를 초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위대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특권을 부여받은 영원 속의 한 점인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처럼 여러 세대를 염두에 두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 다음세대가 다시 영적인 부모로 서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선 세대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제마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9절에서 모세는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법에 대해 가르치면서 먼저 4~6절에서 부모 세대에게 모든 것을 다해 삶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를 마음에 새기도록 했다. 다시 말해, 다음세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된 이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한 것이다. 청년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에서 인생을 동행하는 헌신적인 멘토의 실제 삶을 보며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에게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 주는 그런 멘토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리더는 감히 꿈꾸고 행동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 위대한 후계자 없이는 결코 위대한 성공이 있을 수 없다. 이번 OFFC를 통해 “그래서 다음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계명을 지킬 것이고”(시편 78:6~7)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며 그 꿈이 우리 통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길 기도한다.

이 시대 부모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채경선 교수
(성산대학교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얼마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고 많이 울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이면 모두 죽이도록 명령했다. 요게벳은 불안하고 험악한 시대에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게벳은 어떻게 모세를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수많은 두려움을 겪는다. 물밑듯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심리학에 ‘애착이론’이라는 중요한 이론이 있다. 애착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친밀감을 말한다. 애인스워스(Ainsworth)라는 학자는 ‘낮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 관계를 평가했다. 낮선 상황 실험은 낮선 곳에 부모와 아이를 두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이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낮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논다. 낮선 곳에서도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쭈뼛거리고, 놀릿감에 반응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애착이론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모든 사람은 관계에서 창조되었고,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 기지가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연 자녀의 안전 기지가 되어주고 있을까? 더불어 부모인 우리에게도 안전 기지가 있을까?

애착이론이 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이 있을 때 자녀도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자녀도 건강한 부모를 의지해서 담대해진다. 자녀가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와 힘은 건강한 부모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완전할 수 없다. 늘 완벽할 수 없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다. 점점 몸도 약해지고, 힘도 없고, 때로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부모 역시 삶에서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마태복음〉15장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마태복음〉15장 22절에서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매정한 반응을 보이신다(마 15:26). 사랑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때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한다(마 15:27). 여인의 대답을 잘 보자. 여인이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올바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되어진 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 등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역시 나를 사랑하셔!”라고 고백한다. 반면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라고 따진다. 이런 태도는 되어진 일과 현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둘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녀의 어려움, 삶의 흔들림이 펼쳐질 때 말씀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에 분명히 적힌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면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언제나 은혜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축복하는 어머니,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선포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에게 5편 부모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6.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 QUIZ

1.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선지자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 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시작한 예언자예요. 당시는 풍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돈이 주는 즐거움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빠져 살았어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저를 보내셨어요.

- 나는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을 아내로 맞아 자녀 3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고멜은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제게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특별한 결혼 생활을 통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2. 하나님은 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시기로 하셨나요?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내가 그들의 변절을 ()하고 기꺼이 ()할 것이다. 내 ()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호 14:4).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믿음의 대물림

할렐루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하 어린이 일대일) 12주 과정을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외치며 대물림의 영향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정작 내 아이들의 영적인 대물림에 대해서는 ‘언젠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려오는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서 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부모일까? 라는 생각에 두렵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에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어린이 일대일이었습니다.

열두 살 아들과 하는 일대일은 토요일 늦잠 이후 침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교회 공원, 초등학교 앞 카페 등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10대 아들의 신앙 이야기, 친구 이야기, 교회에 관한

생각 등을 듣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또 평소라면 말하지 않았을 저의 신앙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할머니와 할아버지, 왕할머니의 믿음 이야기, 우리 가정의 간증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아들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의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일대일 교재의 각 과를 시작할 때마다 귀퉁이에 날짜와 장소, 느낌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마지막 과를 마치고 아이와 세족식을 하면서 CCM ‘요게벳의 노래’를 틀어두고 저의 발과 비등해진 아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울컥하는 감정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을 대물림하는 책임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라는 자리를 맡기시고 다시 한번 일대일로 만

나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6장 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어린이 일대일은 초등 3-6학년이 대상이라 중학생이 된 큰아들은 어쩔나 아쉬웠는데, 청소년 일대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가까이 남편에게 양보하려 합니다. 이 귀한 경험을 큰아들과 남편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교회임을 일깨워주고, 부모들이 신앙 교육에 민감하도록 늘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온누리교회 차세대와 어린이 일대일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일대일을 통해 저와 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내가 CGN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후원자, 봉사자, 시청자 최근옥 집사의 고백

CGN이 10월 19일(토)과 20일(일)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2005년 개국한 CGN은 전 세계에 복음을 실어 나르는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광고 없이 오로지 후원으로만 위성방송, 유튜브, 기독교 OTT ‘풍당’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담대한 도전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 ‘숨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CGN 후원자’라고 부른다. 만약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CGN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후원자 중에서 최근옥 집사(양재온누리교회)는 조금 더 특별하다. CGN 후원자, 봉사자, 시청자로 물심양면 돕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옥 집사를 만나서 그녀가 CGN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드림온핸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최근옥 집사(위), 드림온핸즈의 봉사자들(아래).

최근옥 집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실패’였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던 시절이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큰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줬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끝날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크게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달라졌다. 무엇을 하든 예수님께 물었다. 특히 그녀는 섬기는 교회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했다.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찾았다.

“제가 기도하며 찾은 교회의 세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둘째, 권력과 손잡지 않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 셋째,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교회가 그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제가 꿈꾸고 찾았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게 벌써 20여 년 전 일이다. 최근옥 집사는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마음껏 나눴다. 그리고 CGN을 알게 되었다. 당시 같은 순에 있던 이용경 장로(前 CGN 대표)와의 인연이 CGN과 만남으로 이어졌다.

CGN, 날개 달린 선교 방송

“이용경 장로님 내외가 밤낮으로 CGN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

다. 또 중국 선교사로 나가 있던 친구 부부가 잠시 귀국해서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일을 경험하고 CGN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부부와 함께 온 중국 성도들이 최근옥 집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했더니 반색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CGN으로 故 하용조 목사의 입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성도들이 CGN을 아는 것도 신기했는데, 함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을 알고 단순한 기독교 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CGN은 ‘날개 달린 선교 방송’이며, 국경을 초월해서 믿는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CGN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무엇인가 하고 싶었습니다.”

CGN 후원부터 시작했다. 그때부터 10년 넘게 물질과 기도로 CGN을 섬기고 있다. CGN을 알면 알수록, 후원하면 할수록 CGN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만 갔다.

“예전에 군선교팀원으로 군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 상황은 말할 것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CGN이 군대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 못하는 일을 CGN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CGN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옥 집사는 기도와 물질로 CGN 후원을 할 때마다 <시편> 103편 15-18절 말씀을 묵상한다.

“제가 이 땅에서 백 년을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결국은 아무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그러했고, 다음세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허무를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이 되게 합니다. CGN이 하는 사역은 전 세계에서 천국 시민을 만들어내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드림온핸즈’ 봉사자 그리고 시청자

최근옥 집사는 물질과 기도 후원뿐 아니라 ‘드림온핸즈(dream on hands)’도 섬기고 있다. ‘드림온핸즈’는 CGN의 사역 현장을 돕기 위해 2021년 9월 조직된 자원봉사단체다. ‘개인의 시간과 노력,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옥 집사는 ‘드림온핸즈’에서 100시간을 봉사했다.

“저는 30여 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퇴직하고 일 년 정도 여행을 다니면서 저만의 시간을 즐기다가 진정한 자유도, 의미도, 보람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제

목과 하소연을 들은 김순희 권사님이 당시 CGN 대표이사셨던 이용경 장로님께 말씀드렸고, 장로님이 제게 CGN에서 봉사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주로 우편물을 담는 역할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CGN 직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돕는 아주 작은 일이 CGN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나의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 기쁨이 봉사의 원동력입니다.”

최근옥 집사는 CGN 애청자이기도 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놓치지 않고 시청한다. 그녀가 추천하는 CGN 프로그램이 있다.

“‘SOON 3분 메시지’를 꼭 시청하십시오. 메시지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배경 화면도 훌륭합니다. 원본 영상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도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방법대로 먹거리를 생산하고 섭취하도록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여타 건강 음식과 차별화되어서 매우 큰 감동을 줍니다.”

CGN을 그토록 사랑해서 후원자이자 봉사자 그리고 시청자로 사는 그녀에게 CGN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사는 집 창밖에 크게 자란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까치와 참새, 반갑지 않은 까마귀, 시끄러운 직박구리 등 다양한 새들이 날아웁니다. 아주 가끔은 깊은 숲속에서나 들을 법한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새가 행여 날아갈까 숨죽여 집중하게 됩니다. 얼룩진 제 마음을 단번에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묘약을 선물 받은 느낌이 듭니다. 제게 CGN은 이와 같습니다. CGN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CGN은 상업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후원으로만 운영한다. 그래서 광고주 눈치 보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최근옥 집사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CGN 후원을 당부했다.

“CGN에 나오는 설교는 모두 좋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아서 콘텐츠 제작 수준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0원인 방송사는 아마 CGN밖에 없을 것입니다. 100% 후원으로만 운영되기에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선교’라고 하지않습니까? 직접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성도들은 CGN을 후원하면서 미디어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CGN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순수 복음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CGN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796-2243

맛있는 말씀 해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 4:23)

성경의 <잠언> 기자는 지혜를 강조하며 마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서의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서 마음은 문자적으로 ‘심장’을 의미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해석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육체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지성의(知情意)와 인격을 뜻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영혼, 마음, 속사람, 내면세계 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외면세계보다 내면세계를 더 신경 써서 관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잠언> 4장을 보면 더욱 구체적인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전수받고, 아버지가 된 자신이 아들들에게 다시 지혜를 교훈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잠 4:1-9). 여기서 <잠언> 기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며, 지혜를 미워하는 자를 ‘악인’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지혜가 생명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지혜의 길을 가는 자와 지혜의 길을 가지 않는 자의 결과를 비교

하고 있다(잠 4:14-17). <잠언> 기자는 누구나 지혜를 사랑하고, 생명의 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혜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솔로몬이 지혜를 사랑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지혜를 알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지혜를 들어야 한다. 왜냐 이스라엘처럼 말이다. 지혜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별개인 것처럼 지혜를 한두 번 듣는다고 누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를 듣고 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고 권면한다.

첫째,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로 나가려면 우리의 눈과 귀가 지혜에 고정되어야 한다(잠 4:20, 25). 우리의 눈과 귀가 지혜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에 우리의 눈과 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혜를 듣기 원하고, 지혜를 읽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둘째,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마음과 입에서 지혜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는 지혜를 듣는 것만큼 마음과 입술이 지혜를 실천하고,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마음과 입이 서로 연결되어있다고 믿고 있다. 즉,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면,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란 ‘오실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골 2:2-3).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새 언약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언>의 지혜를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모를 때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약 3:17)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은 독한 시기, 거짓, 다툼과 무질서와 악한 일”(약 3:13-18)이 나타난다고 영적 분별력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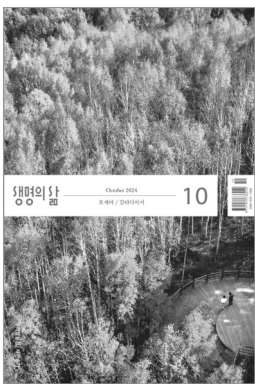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10월 21일~27일
<갈라디아서> 2:11~4:31



는 삶과 이신칭의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다른지 묵상하자.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한 일을 언급한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는 몇몇 유대인이 오자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행동이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돌아가는 일이며,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었다.

묵상포인트 2: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

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는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듯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은 우리를 속량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주님과 합하고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을 약속의 상속자다.

묵상포인트 3: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참된 자유와 권세를 누린다. 그러므로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종이 되려 함은 어리석은 일이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삭과 이스마엘)을 왜 비교하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려는 바울의 수고가 어떠한지 묵상하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초등 학문) 아래에 있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현혹되어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했다. 바울은 성도들을 다시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어 약속의 자녀로 살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듯 거짓 교사들을 내쫓으라고 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으며 매사에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간구하자.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내가 주의할 일이 무엇인가? 생애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힘쓰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 일이 없었는지 돌아보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 율법주의를 쫓는 오류를 범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다시 매이지 말아야 할 옛 습관이 무엇인지 살피자.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대상이 누구인가? 복음으로 그를 율법에서 세워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하고 적용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평택온누리M센터 지체들을 위해서

평택온누리M센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몽골예배공동체 허시게 자매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불드시고, 허시게 자매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란 앓실 자매의 어깨가 매우 아파서 MRI를 찍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수술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얼마 전 중국 봉운 형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했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허락하옵소서.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러시아 안나 자매를 축복하소서. 지금의 과정을 인내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위에 돕는 선한 손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얼마 전부터 베트남 어머니 자매가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이 그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러시아 자매 진주가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평택온누리M센터 한국인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축복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평택온누리M센터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해주시고.

/ 전홍렬 선교사 (평택온누리M센터)

멘토가 멘티에게

거룩한 부자의 꿈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되나
요? 돈을 많이 벌려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일까요?”

성경에서 ‘부자’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나
타의 바늘귀 통과’ 비유가 아닐까 싶다. 하나
님 나라 가기가 매우 힘든 그룹으로 부자를 꼽
은 말씀이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에서는 부자의 유익에 대해 매우 적극
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
며 성실한 자와 의로운 자의 부자 됨을 축복하
고 있다. 개인적으로 2008년 당시 40일 새벽기
도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돈은 중립적인 가
치이고, (쓰기에 따라) 축복이자 저주이다”라
고 설교하셔서 부에 대한 큰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청년들에게 부자 되는 것이 최종 목표
는 아니지만, 꼭 ‘거부’가 되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말하는 ‘거부’란 거룩한 부자이다. 돈에
는 유용성과 위험성의 양면이 있듯이, 부자도
‘거룩한 부자’와 ‘세상적 부자’로 나눌 수 있
다. 평생 모은 100억대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
한 故 장응복 장로님은 거룩한 부자이다. 이런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인색한 부자나 자신의 만
족과 과시를 즐기는 세상적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참된 크리스천 부자의 모습은 거룩한
부자, 의로운 부자이다.

〈잠언〉에서는 부(富)보다 귀한 게 지혜와 명
철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지혜
와 명철을 갖춘 사람의 부유함은 큰 축복의 도
구가 될 수 있다. 〈잠언〉에서는 “남에게 베풀
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영하고”(잠 11:25), “거
저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얻게 된다”(잠 11:24)
고 구제와 나눔이 부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

“부유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한다. 부의 결과로 구제와 나눔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의 형성 과정이 구제와 나눔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부자라면 세상이 좋아하
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세리이자 부자인
삭개오가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에
게 나눠주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오늘 이 집
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셨다. 이처럼
부자의 돈 씀씀이에 따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화를
쌓기도 한다. 세상 부자의 착각은 자신이 소유

한 재물이 영원하리라는 것이다(시 49:9~10).
〈잠언〉 23장 4절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
지 말고 네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고 교훈한
다. 부에 대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다. 이 교훈
의 핵심은 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노력한다고 모두 부자가 될 수 없을 뿐 아
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는 없다는 것
을 알라는 것이다. 동방의 거부(巨富)이자 거
부(거룩한 부자)인 욥의 일생을 자세히 보라.

그는 부자가 되려고 애쓴 적이 없고, 열심히
구제와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 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벼락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잠
28:19-20). ‘부(富)’는 불과 같아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성경에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을 달라”
고 소박한 삶의 바람을 절절히 표현한 구절도
있다(잠 30:8).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도 처하

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빌 4:12)로
부를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 흔치 않다.

“자족하고 청빈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롭고 거룩한 부자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를 바란다. 마
음은 원하는데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답이
아니라 진정 솔직한 답을 내리기를 바란다. 어
떤 선택을 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어
떤 선택을 하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한 것을 제대로 하
자. 하나님은 가난함과 부유함에 상관없이 우
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을 살기를 원한다. 부유함이 우리 마음을 하나
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위험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부유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
리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거룩은 구별됨
이고, 거룩은 사랑이
다.



박기일 멘토
(길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의 친밀감 높이기

건강한 부부는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친밀감은 노력하지 않
아도 주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소홀히 하고, 친밀감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 부부의 친밀감이 주어지
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부부가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부부가 포기하지 않는 태
도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심
한 것을 실행할 때 결혼 연륜에 상관없이 깊
은 연결감을 누릴 수 있다.

커피숍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부가 의외로 많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이 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다른
집도 다 똑같아! 유독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소원해진 부부 관계를 일반적이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고백하는 부부들은 친밀감
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을 실행에 옮
긴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부부
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일상에서 부부가 함께 의지를 가지고
친밀한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반
적으로 친밀한 시간을 계획한다면 특별한 이
벤트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낭만적인 시간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단하거나 특

별한 이벤트가 아니어도 된다. 단조롭게 느껴
지는 일상에서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소소한
시간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부부의 낭
만과 친밀감이라는 단어에 전혀 마음이 동하
지 않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할 시간을 계
획하는 게 필요하다. 한 주 혹은 한 달을 주기
로 부부의 시간을 갖는 게 좋다.

둘째, 가능하면 집을 떠나서 함께 할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집은 행복을 경험하는 장소,
쉬는 장소,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장소라
는 사실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간혹 부부에게
집은 끝없이 밀려드는 가사에 지치고, 힘에 부
쳐 버거움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상황
에 처한 부부라면 집안에서 친밀감과 낭만을
경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때 잠시라도
집을 떠나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사라진 줄 알았던 낭만과 친밀감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 데이트는 집
과 가까운 거리에서 부담 없이, 자주 할 수 있
는 아주 좋은 회복 방법이다. 집을 벗어나 부
부가 함께 영화를 볼 수도 있다. 함께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다. 연애 시절처럼 부부가 함께 데이트 하면
친밀감이 상승한다. 부부가 함께 짧은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족이 함께
여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부부의 시간을 갖
는 게 필요하다. 가능하면 부부만의 짧은 여행

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 여행은 부부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곤 한다.
특별한 장소와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된다.
부부가 함께 결정하고 집을 잠시 떠나는 게
친밀감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셋째, 감성적인 자세를 갖고 부부의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친밀감, 낭만, 데이트는 아무래
도 이성적인 접근보다 감성적인 접근과 접촉
이 필요한 활동이다. 집 근처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꽃을 굳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봐야 하냐고 핀잔을 줘서는 안 된다. 집에서
밥을 해 먹으면 지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곳에 와서 비싸게 밥을 먹어야 하
냐고 말해서도 안 된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과 이를 통해서 얻는 친밀감과 낭만적인 경험
은 이만한 값을 지불해도 될 만큼 충분히 중
요한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
혜로운 부부는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재정
을 모은다. 갑작스러운 지출보다는 함께 조금
씩 모아서 부부의 시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어떤 지출보다 유익할 것이다. 부부의 친밀
과 낭만을 위해서 계획된 시간을 이성적인 판
단의 눈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감성적인
태도와 마음 자세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

넷째,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때 서
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겠다고 다짐

해야 한다. 시큰둥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
와 불친절한 태도를 내려놔야 한다. 평소 자주
부딪히고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주제가 있어
도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게
좋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부
부가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
아 기도로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부부가 더
깊이 하나 되는 친밀감을 경험할 것이다.

다섯째, 따뜻한 접촉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
야 한다. 어떤 부부는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
해서 효과적인 마사지를 배우기도 한다. 서로
의 피곤한 몸을 마사지 해주면서 봉사과 섬김
을 실천하고 깊고 따뜻한 접촉을 경험한다. 이
처럼 친밀감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부부만
의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실천
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시
간과 물질을 투자
함으로 얻는 유익
이 있다. 부부가 친
밀감을 얻고 유지
하기 위해 몇 주
안에 실천할 수 있
는 계획을 세워보
자.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사랑해서 결
혼한 당신에게〉 저자)

양재 권사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

10월 25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

양재 권사콰이어가 6년 만에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양재 권사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월 25일(금)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오른다.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양재 권사콰이어 단원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과 가곡, 영화음악 등 풍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혜숙 권사가 지휘하고,

이현주 권사가 반주한다. 크룩스(CRUX)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양재 권사콰이어 제3회 정기연주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열린 공연이다. 가족과 친구, 가까운 지인 등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도 좋은 공연이다.

문의: 010-3237-2854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10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10월 21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에게 아름다운 시(詩)와 노래, 복음을 선물할 절호의 기회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는 탤런트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이 공연한다. 강석우 집사

가 직접 쓴 시(詩)와 작곡한 곡도 공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콘서트 당일 접수데스크에서도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좌석당 2만 원이다. 구매한 티켓은 콘서트 당일 접수데스크(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수령하면 된다. 콘서트 수익금 일부는 온사랑합창단을 후원한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강석우’ 채팅창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문화 강연 ‘I Have A Dream’

10월 28일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

온라인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문화 강연 ‘I Have A Dream’이 10월 28일(월) 오후 7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막 오른다. 최정주 권사(아트앤뮤직큐레이터, 이수공동체)가 꿈과 비전에 관한 그림과 음악을 소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티켓은 3만 원(2인)이다.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구매한 티켓은 강연 당일 접수데스크에서 수령

하면 된다.

최정주 권사는 홍보 영상에서 “이번 문화 강연에서는 예술과 음악을 통해 희망과 비전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꿈과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I have a dream’ 채팅창

/ 홍하영 기자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11월 6일부터 매주 수

두란노어머니학교 본부 134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5주 동안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11월 6일(수)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오픈 특강도 열린다. ‘이정민 아나운서의 아나운서처럼 말하기’를 주제로 여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부터 2시30분까지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2만원.

문의: 02-218-9114

오픈특강 회비: 더생명나무
우리은행 1005-180-711005

온누리M센터, 차량 구입 후원금 모금을 해 연말까지

온누리M센터에서 차량 구입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다. 아프가니스탄 사역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사역에 활용했던 차량이 노후해서 폐차했고, 외부 사역 증가 등의 이유로 새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교 동력을 위한 바퀴가 꼭 필요하다.

후원금을 보낼 성도들은 올해 말까지 온누리미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문의: 010-5858-4371

후원금 계좌: 온누리미션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운동 기구 현금 후원 요청!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

Acts29 비전빌리지 ‘선교사를 위한 체력단련실’에서 사용할 운동 기구 구매를 위한 후원을 받는다. 후원은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다. 최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는 선교사들의 신체 건강을 도모하고, 선교지에서 운동을 가르치며 선교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목적으로 체력단련실을 개설했다.

이에 대해 스타트레인 정주호 대표는 “운동을 통한 신체 건강은 선교의 사명을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인철민 교수는 “Acts29 비전빌리지 헬스장은 선교사들이 운동할 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내용을 선교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며 “성도들의 작은 정성이 선교사의 건강과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후원을 독려했다.

계좌: 573-910013-11005 (예금주: 온누리교회 액빌훈련팀)

문의: 031-331-8182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이주민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

송파A공동체와 한국어선교학교 연합

송파A공동체와 한국어선교학교가 연합해서 ‘2024년 이주민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어선교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눴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9개국에서 온 이주민 36명, 한국어 교사 및 한국어선교학교 운영진 30명, 송파A공동체 지체 83명이 참가

했다.

전신익 목사(송파A공동체)는 “이번 행사는 이 땅에 머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자리”라며 성도들에게 “해마다 늘어나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한누리 하반기 에하드기도회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누리 하반기 에하드기도회’가 10~12월 두 달 동안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터 7층(가양역 6번 출구, 투썸 건물)에서 열린다. 탈북민사역과 통일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누리 하반기 에하드기도회에서

는 목회자로 헌신한 탈북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의 생생한 간증과 말씀을 듣고, 북한과 탈북민을 위해 기도한다. 더 자세한 안내는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63-9686
(한누리통합팀)

/ 박지혜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임현우 성도(강남A공동체)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미안마를 품은 선교 사역을 만나게 됐고, 왜 와이미션에 오게 됐는지 묵상했다. 그 묵상에 대한 결론은 하나님이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의 피 값으로 이뤄낸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선교 역사가 정체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받았던 그대로 흘러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는 정말 끔찍할 만큼 힘들었다. 나를 힘들게 한 가장 큰 원인은 같이 일하는 동료였다. 그 동료는 지독한 사람이었다. 그와의 관계를 1년 동안 버티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 날 공동체와 함께 네팔에서 온 근로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파주 광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공동체 리더십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함께 갔다. 그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동안 차아왔던 눈물이 쉴 틈 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어루만져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같았다. 나를 감싸고 지배했던 무기력감과 우울감, 나를 둘러쌌던 부정적인

가슴 벅찬 역사하심!

생각들이 사라지고, 은혜가 충만해졌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가기 싫어했던 가장 낮고, 가장 허름한 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이후 나는 복음 중이던 약을 끊고 몸과 마음을 모두 회복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 그 경험이 와이미션에 참가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은혜로 시작한 와이미션을 듣기 전과 후에 나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지금도 고민하는 과제이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 같지만, 몇 가지 분명 달라진 게 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었고, 미전도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됐다. 기도제목들을 나누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항상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여주시 가슴 벅찬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흘러보내 미전도종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겠습니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GN 인도 아웃리치 간증



/ 이세린 자매(CGN 콘텐츠전략팀)

CGN에서 3년 동안 미디어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작년에 캄보디아로 첫 아웃리치를 떠났다. 올해는 인도 아웃리치 팀장을 맡았다. 내가 “인도로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인도 선교 경험자들이 “인도는 어느 것 하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땅”이라고 말했다. 그 말 그대로 아웃리치 준비 과정에서 현지 사역까지 어느 것 하나 계획과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없었다. 현지 사역자의 한마디에 사역이 엮여지기도 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들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팀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선교지의 현실을 체험하고 알게 하셨다.

“이 팀은 진짜 인도를 다 겪고 가네”라고 하셨던 선교사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도착하자마자 가정방문 사역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주일 오후 예정되어 있던 약 60명 대상 어린이사역이 당일 취소된 일을 통해서도 인도 선교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팀원 모두가 불평불만 없이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 주일 오후 일정이 변경되면서 갑작스레 만나게 된 믿지 않는 한 영혼의 기도 요청이 아웃리치팀에게 큰 감동으로 남았다.

‘진짜’ 선교 현장

CGN이 늘 외쳤던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이 체력으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귀국하는 날 기도를 부탁했던 분의 어머니가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인도에서 본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계급 사회의 잔상들,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인도로 넘어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교사님까지 책상에 앉아서 다 알 수 없는 진짜 선교지의 모습이었다. 그들을 보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졌다. 또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절절하게 와닿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선교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다.

인도 아웃리치에서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해 CGN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생생히 듣는 시간도 소중했다. 또 CGN의 콘텐츠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양재

강남A
박정석 고석빈 배찬희 신인석 송용상 김인선 오인희 전은아 이다현 김경아 이상은 임주영 이정란 조혜영 이주희 권선정 정수연 이상자 정호숙 이계영 제니소 김은실 최병관 황성룡 최윤영 안현경 최진욱 홍문식 최혜진 신재금 홍덕희 장현숙 홍훈철 김진세

강남B
김갑수 김범호 김선영 장유진 박지선 서수경 생백호 이인상 양윤정 이현숙 여민호 김중철 육익근 박경성 이소희 최정은 이윤정 이해람 조현우 김은혜 최현희 이복희 홍명희 김혜령

강남C
권경희 박정원 김계성 박성준 김민석 김영택 김서영 강배임 김은희 허인열

김지용 이상주 문정민 김기원 박병주 박경열 성경은 박동아 정윤희 김선영 최미애 이연실 하인숙 이일금

강남D
강창호 우권재 김상은 한충희 노연지 남광나 배미나 김현진 방하은 방희연 서정호 박상돈 이호선 김영희 임정애 석현호 정태윤 김성호 정혜리 육주연 홍지선 이호영 황성필 최태식

강남E
강혜옥 선영미 김리자 이경란 김수경 김주영 김순재 김보성 김윤형 양익환 김진기 조용훈 박원석 신 현 송혜옥 박은미 신지원 박정현 양윤성 곽현정 유진경 김금자 이영민 홍윤숙 정화옥 박정현 조경진 신동기 조금영 송문자 조미령 장영은 하정희 이미현

현대홍 임현진 **경기A**
권이찬 서원열 김규하 박승병 김순덕 이미경 김영수 권오삼 김혜은 아규화 문미숙 박지영 이윤희 이수정 조재희 김명의

과천의왕
박은영 이남미 이종혁 김상기 조은근 이기훈 최진표 박효성

도곡
고문주 장수진 고희경 남희숙 김명범 이정구 김희경 유지현 신지영 오연석 이계원 이기현 최현호 이민영 최현진 이수진 한유선 김은영 홍성혁 신동기 황진선 김은진

분당A
권용규 김창섭 김기현 김현정 김형욱 우성엽 문소정 홍양순 박정원 임혜성 신순애 양미영 심우찬 이상규 심희자 김선미 이옥선 남경영

이현정 홍용희 이호선 조성임 정한숙 허지영 **분당B**
김병철 최동기 최재진 김승현

서초A
김덕은 고순영 여은희 남해용 이계창 강신원 이정순제니스 오경희

서초B
강신애 김미경 김태룡 김경환 김혜랑 이경아 박경호 박종일 박윤진 김윤숙 윤여철 박준민 윤창현 이상준 이용훈 이지석 이재엽 박대수 이항범 이용경 임수희 정수년 장태은 허해란 정광섭 한형기 정아영 박은미 황윤성 김신석

서초C
신연승 신상만 오영주 노정숙 오종욱 조주형 전은선 최낙숙 조원상 박언용 조윤아 김미순

서초D

구우람 양정환 권경수 방정용 박준규 김현태 송호준 김선민 우영재 박도준 유은혜 우현정 이경주 한경원 이명재 한승진 이민성 김명삼 최정윤 이경애 황성택 김하선

송파A
민명숙 원현주 서수연 하은선 서현석 정지석 유현정 윤선희 이호준 김석담

송파B
박두리 최지훈 박장우 양석진 박정아 강은영 서상완 안철민 한승연 유경아 홍지영 여선화

양재A
고우리 강현주 김민정 이은실 김원영 이관우 김태식 김시용 김혜진 이경란 박향숙 이지은 백현정 신명미 서주영 이소정 양인지 최정숙 유승환 김재필 윤상순 엄정민 이상훈 추진희 이소현 최인화

이신형 정경환 임수영 김금희 채연옥 홍윤숙 황주은 최혜진

양재B
고수정 박연숙 김선미 최경희 박선진 최경희 박정호 노균수 이정민 장선화 이하진 김금순 조성환 김용진 홍은주 오지영

Point5
구자성 임 면 송지희 장상원 신승주 이지수 전종근 서의성 한찬희 박대순

푸른누리
권윤혜 정현주 권현준 서형원 김승태 김광직 김효진 최교아 김희연 전해진 남윤성 이신준 도경미 박은혜 장성경 박은혜 정지훈 송창희 최혜원 임은아

특별한초대
권재민 김성호

하나
임아영 이영미

공동체 없음
김민석 신태성 박근아 손은형 이근혜 한경원

Bridge33+
곽원재 남윤영 문주하 임은영

박미현 이민경 박민정 하우정 최송희 김정은 최연미 남해용 최혜진 김지은

대청
나연재 박승용 박예나 이희실 조하연 김현정

여호수아
김미영 최혜정 고지인 한정선 전지현 이혜옥 권슬비 김경미 김국천 김 준 김민영 우승연 김보람 김은혜 김영세 정재용 김현지 김유정 김현홍 조익현 김화연 정지연 김호주 김제니 남준주 이승희 문혜원 이예지 박세현 이지영 박하늘 김수양 박혜연 이시영 박혜진 김용희 백성민 이규영 서의림 이용국 소병은 이상희

손다인 이주영 송예서 박은지 신소윤 류승희 신예서 배은경 양현민 박준민 오상덕 유 준 원우경 김희경 유재승 김동원 윤기원 이고은 이다은 이자원 이 선 백경숙 이선행 박은영 이예림 이석미 이예은 강상진 이유민 원선호 이유민 강영희 이은비 이기선 이은지 정성애 이주원 임종태 장나래 하현선 전예송 조혜은 전지용 김기덕 전지현 이혜옥 조서진 송경진 조성준 이경옥 조형래 김명삼 조희수 이정희 주재학 추정훈 최정은 이옥자 홍유진 강지화 황영현 이기선 황지혜 김애림

하브
강문성 김형일 김나현 번가령 김민서 안영진 김민재 정문선 김서영 정호진 김연재 윤복희 김하늘 이호미

김하민 이지영 노영찬 박태성 민경현 조진우 박성환 박태식 박주영 노금희 박주혜 기정민 백지민 변지선 백하연 이종환 송민재 이혜송 송예린 한주미 신규진 김윤옥 신재빈 남 현 오승아 정영은 오운암 양윤석 오은지 도재현 원다인 정은정 이다일 이진수 이수빈 신영미 이수현 이종원 임종민 최규원 전성인 정기삼 정화찬 이동주 신윤재 신광호 허소진 김은정 황한나 유수경

J4U
김정원 이효영 김태민 심효무 김하람 공지혜 성영재 김근환 신윤재 신광호 신인경 이희정 유수현 박하정 이미지 이재용 정진만 이호찬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10월 20일(일) 양재 2부 예배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5월 9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				
양재	장로반	김경희 김명희 김봉선 김성민 김세리 김인경 류영찬 박정웅 윤기연 이영애 이오훈 이주연 이혜원 이혜인 임현주 장지현 전동화 전순실 최상규 한성준	김경하 김영호 김은영 김충성 김충현 김현기 김혜원 노희훈 류한순 박미란 박주영 서민음 손진아 신문희 유미영 이명은 이예림 이유선 이한동 임준형 장준호 전경호 정은선 정지호 진호경 하선영 황혜정	목사반 김소희 김수정 김수진 김숨미 김주희 김지혜 김진선 박선남 박지혜 박현선 오신영 유정열 윤선정 이은옥 임기순 장혜진 정지인 정현주 최종란 최진희 최희영 허귀애
박동현 장로반	고석상 김미림 박성진 박종미 손은희 안태민 이상훈 이지영 정혜원 하동진			
이진숙 권사반	김대연 김미경 김영미 김학동 김호윤 문정곤 이기우 이민경 이지연 주정훈 한상임			
조대희	강현주			
한복규 장로반	강소미 고은희 권은경			
하원희				

장로칼럼

로잔 정신과 사회선교



정운오 장로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4차 로잔대회가 개최됐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대회 때부터 ‘복음 전도의 긴급성’과 불의와 억압, 가난과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그리스도인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두고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2010년 제3차 케이프타운 대회에서는 이 둘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서약서를 선포하였다. 이러한 정신에 근거해서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교회여, 다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구호가 채택되었다. 이제부터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가는 온전한 선교, 총체적 선교를 해야 한다.

이번 글을 통해 과거 3차에 걸친 로잔대회를 관통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이 이번 제4차 대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알아보려 한다.

먼저, 이번 대회의 구호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이 각각 ‘복음 전도의 긴급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을 말로 전하는 것, 즉 복음 전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자”는 구호는 복음 전도의 긴급성을 함축적으로 선언한다. 이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분의 공의와 긍휼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고, 복음에 합당한 선한 행실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선한 행실에 관해서는 성경의 많은 곳에

서 언급하고 있지만, 특히 <이사야> 58장 6~7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악물과 도박, 과중한 빚과 같은 흉악한 결박에 묶인 자의 멍에를 풀러 주고,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이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주리고 헐벗은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자”는 구호는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함축적으로 선언한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에서 마이클 오 로잔위원회 총재가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재림이 다가올수록 악은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더욱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라 말하였다. 동성애를 생각해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부끄럽게 여겨 감히 말하거나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스스럼없이 커밍아웃하며 “뭐가 어때?”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 더 나아가 여기저기서 퀴어축제를 벌이며 공공장소에서 보기 민망한 행위를 떳떳하게 드러낸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들이 정치 세력화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이르렀다.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물결이 도도히 밀려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나 ‘차별금지법’ 등 선한 언어로 포장되어 악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들이 더욱 뚜렷해 질수록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복음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더욱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주님의 대위임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백성과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와 더불어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사회적 책임을 교회들이 완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할 때 지상의 교회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순결한 신부가 되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역칼럼

AIC교회 헌당식과 열매



윤정화 본부장
(NGO 더멋진세상)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행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난 9월,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남수단 공화국 과케마에 아프리카 토착교회(AIC, African Initiated Church)를 건축했다. 이 일의 시초는 한 후원자님의 헌신이었다.

남수단은 북수단으로부터 2011년 독립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내전으로 남수단 사람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남수단 기독교 신자들은 건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나뭇가지 영성하게 엮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은 후원자님의 후원금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 그 교회가 남수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다.

남수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교회 건축을 진행했다. AIC교회 건축은 4월부터 시작되어 우기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남수단 작은 마을에 세워진 AIC교회 헌당식을 했다. 나는 그곳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뤄진 현장을 직접 목도했다. 하나님의 계획과 후원자님의 헌신,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NGO 더멋진세상과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AIC교회 헌당식이 있기 하루 전날 남수단에 도착했다. AIC교회가 있는 마을로 곧장 달려갔다. 교회 앞마당에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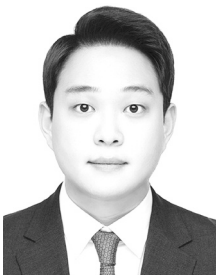
냥 좋아서 뛰놀고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교회 앞마당을 쓸고 종이를 주우면서 AIC교회 헌당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AIC교회 헌당식은 아침 10시에 시작했는데 무려 6시간이나 했다. 오후 4시에 끝났다. 이날 헌당식에 7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교회 안에 약 300명,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약 400명이 모였다. 6시간 동안 이어진 AIC교회 헌당식은 결코 길다 여겨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아름답고 영광스런 감격의 시간이었다.

AIC교회 헌당식에서 어린이 40명 정도가 합창을 했다. 그 아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 “Thank you my mother Elizabeth, God’s blessing her”라는 가사가 내 마음을 울렸다. 선교사님이 남수단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my mother’라고 인식되었을까? 선교사님의 순종과 헌신이 남수단 과케마에 하나님의 사랑꽃을 피웠다. 또한, 이 곳에 우물을 개발하고 예배당을 지어줘서 마음 깊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남수단 과케마에 세워진 AIC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자라는 어린이들이 10년, 20년 뒤에 남수단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귀한 초석을 놓은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세계 곳곳에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는 손과 재정이 한정적이다.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을 돕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더 멋진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곳곳을 더멋진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일에 동역했으면 좋겠다.

신앙에세이



최베드로 선교사
(우크라이나)

2022년, 내가 OSOM 32기 훈련을 받던 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됐다.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겐 믿기 힘든 뉴스였다. 그 뉴스를 접하고 얼마 뒤 당시 안산M센터 소속이었던 나에게 노규석 목사님이 연락하셨다.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촌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그 땅에 가기를 권유하셨다. 나는 러시아 MK(선교사 자녀)로서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아내 최지은 선교사와 함께 기도하며 우크라이나 난민

을 위해 선교하기로 했다. 선교사 파송장도 없이 6개월 선교 기간을 정하고 급하게 현장에 왔다.

6월 28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서 난민 수용소와 난민 쉼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섬기고 있던 바르샤바한인교회 난민선교팀에 합류해서 진행했다. 그 이후 사역을 확장하면서 엄마의 집, OSSA 고아원, 우즈 고아원 사역까지 하게 되었다. 6개월이 급세 지나갔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TIM(두란노국제선교회) 본부로 소속을 옮기고, 폴란드에서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를 하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 우크라이나에 왔을 때 교회 개척 사역은 짧은 기간에 할 수 없어서 기도제목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2022년 7월 17일, 난민 쉼터에 있는 사람들, 난민 수용소에서 복음

하나님의 위대하심

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세웠다. 난민선교팀 10여 명과 쉼터에 있던 우크라이나인 10여 명이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 난민수용소와 고아원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주권으로 예배공동체를 세우셨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곳에서 모인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하나님의 평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평화 교회 성도 70%가 새신자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11명이 세례를 받았고, 올해 8월에도 3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저 K-문화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고아원에서 육설을 하고 반항적이던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고, 노방전도하다 울드타운에서 만난 청년 4명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를 소망한다. 그들은 쉽지 않은 실제적인 결단을 하

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중년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 한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섬기던 하나님의 평화 교회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주축이 되었다.

하나님의 평화 교회에는 전쟁으로 인해 돌아갈 가족과 집을 잃거나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러시아군 행정 업무 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모두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되심을 노래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있다. 전쟁은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하는 전쟁 피난민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할 뿐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분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신동아 쇼펍센터 3층(302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010-5766-446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홍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제출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팀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일대일 DAY
일시: 10월 27일 오전 8시~오후 4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
내용: 우수 양육자 시상, 포토존, 일대일암
송대회, 일대일 상담 등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영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영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중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6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캄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1, 3주 주
일 연습은 10월부터 재개)
장소: 서빙고 온누리청소년수련관 청소
년프로그래실(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김미현 010-8285-6435

TP44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2월 30일~2025년 1월 24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접수: www.visionvillage.org
마감: 11월 29일까지
문의: 031-331-818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두란노국제선교회(TIM) 간사 정규
직 공개 채용**
모집: 행정간사 1명(정규직, 4대 보험)
자격: 세례교인, 경력 무관 및 경력 우대
지원: 지원서(본 기관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지원 접수(prmanager@4l
ovet.com)
마감: 11월 30일(토) 혹은 채용 때까지
문의: 기획동원팀 팀장(070-4464-8102)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온라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가족예배 10:30 B2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09:00 B2 분당 / 2부 11:30 B2
분당 / 3부(대학청년) 16:00 B2 분당 행복한하나예
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외국어예배 중국어예배 14:00 B1 소예배실 / 힌디
어예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 네팔어예
배 토요일 19:00 남양주M센터 301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3F 꿈아이홀 / 유치부
11:30 3F 꿈이툼홀 / 유년부 11:30 2F 드림홀 / 초등
부 11:30 4F 비전홀 / 중등부 11:30 교육관 3F 믿음
홀 / 고등부 11:30 교육관 3F 소망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텐
젤라홀 / 초등부 11:30 길보튼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2부 11:3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30 백향목홀(3층), 꿈팡(초등부)
11:30 알렐루(2층), 꿈팡(유년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텐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
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사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克蘭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m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HCMC, Vietnam
---	--	---	--	--	--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지영
김상규 김선재 김경옥 김성웅
김승겸 김승안 김경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성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팔 김태웅 김태환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김대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온 박성배 박성진 박전중
박정준 배현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규
유진아 유현목 유미라 유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진기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한호 정한석 정희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진민기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종호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홍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복 임동현 장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강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국내파전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김재우 김현진
박씨마 백순현 비 겔 서영철
생애애 사가르 양현수 윌엘세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장광석 정욱진 정요한 제인랑
존피아 최정현 하효경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여람 권재택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모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민수 김승희 김예찬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홍미 나가노
마사토 남 해 문진영
박미애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이연 방진아 서예찬 서은섭
손위결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무택 양현모 영명덕 오성광
이진수 이정미 이진규 이만규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길문
윤석부 윤조현 윤종연 이나단
이도열 이동준 이미진 이만규
이반석 이선헌 이소라 이시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종영 이주영 이현준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장기만 장진우
정상원 정성민 정영연 정은영
정찬중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우현 조은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차선일 최강주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근
홍세나 홍솔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영진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국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한 권영선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권성진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병중 김병철
김병훈 김상섭 김석인 김선대

●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대욱 강은철 고길범 고창태
곽병철 곽진성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영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연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갑갑 김민찬 김병승 김병국
김성규 김성중 김상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국 김신원 김영관
김정영 김정민 김정철 김선호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영 김정민 김정철 김진민
김종만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학 김지현
김지현 김희구 김희준 김희민
김철주 김해기 김한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준 김화선 김화신
남윤창 남희수 남희준 남영범
나 영 나영옥 남명현 남상길
남윤창 남희수 남희준 남영범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원 박두원 박명균
박영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규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지완 박혜한
박 현 박학균 박형민 박홍신
박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현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대 손태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희도 안동현 안상현 양상식
양 동 양성철 양준홍 양준경
양총식 양현열 오명 오빈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상철 윤석익 윤성수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형은 최윤석 최지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대욱 강은철 고길범 고창태
곽병철 곽진성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영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연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갑갑 김민찬 김병승 김병국
김성규 김성중 김상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국 김신원 김영관
김정영 김정민 김정철 김선호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영 김정민 김정철 김진민
김종만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학 김지현
김지현 김희구 김희준 김희민
김철주 김해기 김한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준 김화선 김화신
남윤창 남희수 남희준 남영범
나 영 나영옥 남명현 남상길
남윤창 남희수 남희준 남영범
명연찬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원 박두원 박명균
박영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규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지완 박혜한
박 현 박학균 박형민 박홍신
박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현 서광재 서두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대 손태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신재영 신철우 신하철
신현승 심갑섭 심천보 심효우
심희도 안동현 안상현 양상식
양 동 양성철 양준홍 양준경
양총식 양현열 오명 오빈규
오상목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상철 윤석익 윤성수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훈
이성준 이형은 최윤석 최지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 시무장로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종우
이원장 이재준 이종우 이종길
이종우 이종길 이진주 이혜달
이훈우 이태원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현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재남 임태배
임호열 임희정 장경문 장경식
장광영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현규 정영기 정영주
정현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국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화 정일영
정재범 정진호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환 조성환 조진호
조성규 조성대 주재광 진종규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원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재 최현수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영수 한성규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하 경 허대환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승우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유일

●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은영 김경국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진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희
남민우 남예셀 노보라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신희 박아영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지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영진 염주희 염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선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서민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규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해외 온누리교회

● 담임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택 요시하라
매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 OMA 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경준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김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옥 박효빈
배성우 변범식 손 담 손정현
손미경 신기원 심재진 심형진
안성진 양진범 엄영기 우상상
유병중 유영준 이경호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석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철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지훈
허 민 홍동욱 홍성은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결혼·세례

■ 결혼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박기종, 이혜란의 아들 박성진(온누리교회)
정영택, 강영희(온누리교회)의 딸 정예진(온누리교회)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2:00 양재 사랑을
차한필, 감미자(베아직교회)의 아들 차형근(온누리교회)
신원식, 권정숙(창신성결교회)의 딸 신예진(온누리교회)

■ 세례

허브 -임교
서사무엘 020508 김요한 041024
장태원 051109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민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정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
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14시~17시),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온누리요양센터 이민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외상 어르신)

내용: 이민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민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양지온누리교회 부근)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
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관리인 안내

입금지원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갑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101(화) 서초A 남궁은 집사 부친상 고 남궁창
102(수) 서초D 원효선 성도 부친상 고 원영재
102(수) 양재B 박연숙 집사 모친상 고 정순이
103(목) 양재A 강현주 성도 부친상 고 강완수
107(월) 경기A 정혜정 성도 부친상 고 정창교
107(월) 양재A 김학범 집사 빙모상 고 김춘희
108(화) 과천의왕 유선옥 권사 시모상 고 원영희
1011(금) 누리사랑 김만영 목사 부친상 고 김도수
1012(토) 이촌 서준원 성도 모친상, 정지원 집사 시모상
고 엄복희
1012(토) 동작 유재상 성도 모친상 고 김지화
1012(토) 여호수아 강규민 성도 부친상 고 강건호
1013(일) 송파A 문시원 성도 시부상 고 고덕봉
1015(화) 송파A 백경애 권사 모친상 고 이영옥
1015(화) 이수 손은혜 집사 시부상 고 문관석
1015(화) 한강 아주사 권사 남편상 고 김형달
1016(수) 남대문외방 고 김춘찬 성도
1016(수) 고양은평 소현수 선교사 모친상 고 김금수
1016(수) 영등포구로 이혜원 성도 부친상 고 이영복
1016(수) 강남D 양병옥 성도 부친상 고 양광근
1017(목) 과천의왕 장동진 성도 부친상 고 장우식

CGN
함께!
미디어선교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한국교회와 다음세대까지
지난 19년 동안 CGN은
오직 '선교'라는 뜻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는
CGN과 미디어 선교사로 함께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 QR



증액후원 QR